

발행인·박성대/편집인·김정길/주간·한학동/편집·정만진, 홍억선, 홍헌득/발행처·계성학교 총동창회/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053)255-3900  
FAX(053)256-4942/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인쇄처·민기획, 홍임호/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244-17 ☎(053)256-8534, FAX(053)255-7831



## 조선일보 김문순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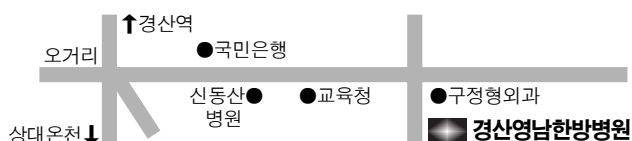
2006년 7월 25일(화) 저녁 7시 서울특별시 소공동에 위치한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일식당 동해에서 박성대 총동창회장이 마련한 「조선일보사 김문순(49회) 발행인 겸 대표이사 취임 축하연」이 정·관·재계와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 종사하는 33명의

계성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조준제 재경 동창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서울에서 각계의 요직에서 활동하는 많은 계성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모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계성의 힘을 한데 결집하고자하는 박성대 총동창회장의 역할이 컸다.

### 경산영남한방병원

理事

李 松 國 (50회)



경북 경산시 중방동 837-6번지  
TEL : (053)811-7700~1 직통 : (053)811-7703  
FAX : (053)811-7702 H·P : 018-523-4721



# 김문순 조선일보 대표이사 취임 축하연/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연회장에서 계성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있어 이 자리가 가능

6월 25일 오후 7시가 가까워 오자 행사장 앞 로비에는 미리 도착한 동문들이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과 반갑게 인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고 7시가 되자 사회를 맡은 조준제 재경 동창 회장은 「일기에보 상으로는 오늘 행사에 참석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걱정했는데 역시 계성학교의 모임이라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공식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시작 기도를 한 김병일 장로는 「100년 전 한반도의 남쪽 대구에 계성을 세우시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큰 일을 맡은 조선일보 대표 이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100주년 행사에도 좋은 결실이 맺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고 했고, 박성대 총동창회장은 「오늘 이방이 흰하지 않습니까?」며 말문을 연 뒤 「계성의 자랑스러운 인재들이 모여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까지의 10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100년도 중요합니다.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지만 오늘 이 행사도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많은 동문들이 협조하고 더구나 해외에서까지 참여하고 있지만 모교를 위해 힘쓰는 것이 어디 경제적인 것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동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행사의 주빈인 김문순 조선일보 대표이사는 「박성대 선배님께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최근 조선일보는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언론의 역할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 취임축하연 모습. 좌로부터 김봉운, 김용태, 박성대 회장, 김문순 대표이사, 신일희 계명대 이사장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 계성 동문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일희 계명대학 이사장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의 대표이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선일보를 통해 개혁과 봉사의 계성 정신을 만방에 알리고 계성과 조선일보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위해 봉사해주실 것」을 당부 했다.

건배 제의를 한 신성택 총동창회 고문은 「여기 모인 우리가 구심점이 되어 계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기원합니다.」고 한 뒤 건배를 선창했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계성」으로 답했다. 김용태 총동창회 명예회장은 「나는 김문순 대표와 한술밥을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저는 편집국장직을 마지막으로 다른 길로 나갔는데 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책임감과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이제 김문순 대표를 보려면 하도 높

이 있어 망원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김문순 대표의 건승과 이 날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했다.

김병일(56회) 동문은 「김문순 선배가 일선 기자로 관청에 출입할 때 공무원들에게는 악명(?)이 높았는데 그 때 선배인줄 알았다면 사무실에서 어깨에 힘 좀 주었을 터인데, 평소에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사람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이 오늘의 이 자리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살면서 계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며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풍토가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하며 취임 축하했다.

김재현(59회) 고등학교 교감은 「교장선생이 출장 중이라 학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훌륭한 선배들을 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분위기를 학교와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고 인사를 했다.

금융 감독원 임주재(59회) 동

문은 「평소에 우리 공직자들은 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해왔는데 이제는 사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하고 말해 좌중에게 한바탕 웃음을 선사했다. 그러자 중앙일보에 근무하는 김왕기(61회) 동문이 「계성 언론인 모임인 '계언회'가 있으니 불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고 즉석에서 평화협정을 제의 했다.

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은 「평소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올 해로 100주년 되는 학교가 6개 있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동문들이 다른 동창회에 비해 선배배간의 서로 당기고 밀어주는 끈끈한 결속력이 미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차체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고 한 뒤 장학재단 설립 후의 경과와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한편, 이한성(63회) 서울 고검 차장이 입구 쪽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어떤 동문이 「어허! 서울 고검 차장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몇 안되는 검사장 중의 한 명인데

어찌 말석에 앉아 있노. 계성이 이리 세냐?」하자 이한성 동문은 「후배를 키우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해 또 한바탕 웃음이 이어졌다. 이런 풍경은 계성의 인재가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일 뿐이었다.

이렇게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나눈 뒤 사회를 맡은 조준제 재경동창회장이 「100주년 행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박성대 총동창회장, 김정길 총동창회 사무국장, 이응재 재경 동창회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혹, 밤늦게 전화가 가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모쪼록 오늘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고 하자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식사를 하며 다시 한 차례씩 각계의 소식, 또는 학교의 근황, 동창회의 소식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식사 후 동문들은 오랜 시간 여담을 나누었고 교가 합창을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가 끝났다. 그러나 동문들은 자리를 뜨기가 아쉬운지 호텔 로비에까지 나와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교 개교 100주년 행사와 계성 총동창회 그리고 모교 계성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가슴 한 곳이 뿌듯해 움을 느꼈다.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박성대(38회), 김봉운(40회), 김용태(41회), 신일희(44회), 신성택(45회), 조준제(47회), 서영수(48회), 김문순(49회), 이시원(50회), 김덕수(50회), 유윤철(52회), 이승환(52회), 윤동한(52회), 신상민(52회), 윤종훈(53회), 이강철(53회), 김대환(55회), 김재복(55회), 김정길(56회), 김석준(56회), 양덕준(56회), 김병일(56회), 이재우(56회), 김기웅(58회), 임주재(59회), 김재현(59회), 김재희(60회), 조영주(60회), 김왕기(61회), 이한성(63회), 이응재(64회), 김동철(65회)

글 · 한학동(64회)

## 일광전기 현대중공업 (주)대구·경북대리점

### 취급품목

현대모터 · 인버터 · 기어드모터 · 고효율모터  
시대모터 · 감속기 · 브레이크모터 · V.S모터

대표  
김 정 구 (55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2가 54-2  
TEL : (053)358-4182~4, 352-7282~3  
FAX : (053)358-4185 H·P : 011-532-4182  
E-mail : ilkwang6@korea.com

#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며 6만 동문 모두가 10구좌(100,000원) 이상 출연하여 **모교 개교100주년을 맞아**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고 그 이름을 **글로벌화**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장학기금 납부자

(2006. 4. 28 ~ 2006. 7. 31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성명	기수	납입금액	성명	기수	납입금액
유 윤 철	52	50,000,000	엄 재 길	58	120,000
김 웅 길	45	30,000,000	박 성 복	44	100,000
여 동 영	47	10,000,000	윤 웅 희	55	100,000
한 정 인	52	10,000,000	김 상 활	55	100,000
조 준 제	47	5,000,000	김 영 근	58	100,000
이 상 기	41	4,745,000	홍 욱 현	58	100,000
박 총 호	61	3,000,000	이 병 한	59	100,000
소 현 수	46	1,000,000	김 용 신	60	100,000
윤 신 박	46	1,000,000	임 병 현	60	100,000
전 병 철	56	500,000	장 준 영	64	100,000
윤 위 한	45	300,000	사 창 동	65	100,000
박 평 우	46	300,000	장 용 원	66	100,000
박 종 철	52	300,000	허 환	57	90,000
박 정 룡	53	300,000	최 혁 준	64	50,000
임 경 국	60	300,000	이 상 필	63	30,000
박 청 일	46	200,000	59회동기회	59	10,000,000
김 홍 일	55	200,000	구 미 지 부		500,000
이 국 희	58	200,000	예금이자(보통예금)		20,827
총 합 계		129,255,827			

## 100주년 사업 부담금

(단위 : 원)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27		46	300,000	65	1,000,000
28		47	500,000	66	1,000,000
29		48	500,000	67	1,000,000
30		49	500,000	68	
31		50	500,000	69	
32		51	500,000	70	1,000,000
33		52	1,000,000	71	1,000,000
34		53	1,000,000	72	1,000,000
35		54	1,000,000	73	1,000,000
36	100,000	55	1,000,000	74	500,000
37		56	1,000,000	75	500,000
38	100,000	57	1,000,000	76	
39		58	1,000,000	77	
40	200,000	59	1,000,000	78	
41	300,000	60	1,000,000	부산지부	3,000,000
42		61	1,000,000	울산지부	3,000,000
43		62	1,000,000	시카고지부	500,000
44	300,000	63	1,000,000	뉴질랜드지부	500,000
45	300,000	64	1,000,000	구미지부	500,000
총 합 계		32,600,000			

## 회보구독료 납부자

(2006. 4. 28~2006. 7. 31까지 입금내역임)

### ▷100,000원

정문택(42회), 이한익(53회), 최병철(56회)  
장동희(60회)

### ▷50,000원

백영수(42회), 김우상(51회), 김시우(52회)  
안광혁(66회)

### ▷30,000원

임경종(49회), 우성구(56회), 최성교(56회)

송호달(57회), 이병형(64회), 김정수(69회)  
박준모(75회)

### ▷20,000원

이승하(36회), 윤위한(45회), 박종섭(47회)  
이영래(50회), 최윤호(51회), 김영수(53회)  
박동식(53회), 이도영(54회), 송종수(57회)  
박수일(57회), 천인수(59회), 이일우(63회)  
정봉남(64회), 이진환(64회), 김국진(68회)  
정상수(68회)

### ▷10,000원

권태갑(36회), 허동원(39회), 이판상(39회)

## 장학기금 및 회보 구독료 기별 납입금 내역

(2004. 8. 1 ~ 2006. 7. 31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기 별	장 학 금			회 보 구 독 료	
	기별부담금	개 인	인원	금 액	인원
23		300,000	3	50,000	3
26				50,000	1
27		5,000,000	1		
29	300,000	1,000,000	1	30,240	3
30	300,000	200,000	2		
31		200,000	2	30,000	2
32	300,000	300,000	1	10,000	1
33	1,500,000	300,000	2	10,000	1
35	200,000	150,100,000	2	160,000	6
36		100,000	1	120,000	10
37		15,100,000	2	130,000	4
38	100,000	1,600,000	3	70,000	5
39	1,000,000	900,000	4	550,000	34
40		7,400,000	9	230,000	9
41	5,000,000	11,245,000	5	80,000	6
42	5,000,000	14,600,000	11	340,000	16
43	5,000,000	400,000	3	60,000	2
44	5,000,000	27,530,000	25	620,000	26
45	7,000,000	47,930,000	15	440,000	24
46		4,400,000	11	180,000	15
47	7,000,000	38,550,000	9	350,000	20
48	7,000,000	1,650,000	6	140,000	7
49		1,850,000	10	340,000	14
50	10,000,000	40,700,000	6	520,000	18
51	10,000,000	20,900,000	8	710,000	47
52	10,000,000	121,400,000	16	510,000	31
53		11,700,000	14	840,000	45
54	10,000,000	1,600,000	7	730,000	49
55	3,000,000	1,000,000	10	380,000	25
56	10,000,000	17,130,000	15	870,000	46
57	10,000,000	290,000	2	360,000	25
58	10,000,000	11,040,000	10	830,000	26
59	10,000,000	750,000	5	410,000	24
60	10,000,000	1,620,000	14	610,000	45
61	10,000,000	3,210,000	4	210,000	16
62	10,000,000	100,000	1	400,000	14
63	10,000,000	590,000	7	490,000	36
64		12,280,000	14	670,000	43
65		100,000	1	250,000	18
66		900,000	5	260,000	16
67		100,000	1	140,000	5
68		600,000	4	340,000	25
69		550,000	7	460,000	21
70	7,000,000	300,000	4	120,000	6
71	7,000,000	570,000	7	370,000	27
72		240,000	1	90,000	7
73		130,000	2	90,000	7
74	7,000,000	200,000	3	30,000	3
75				40,000	2
76				10,000	1
78		50,000	1	20,000	2
원주지부		400,000	13		
부산지부					
재천지부		400,000			
포항지부		3,000,000			
영천지부		1,000,000			
시카고지부		2,000,000			
구미지부		500,000			
무 명		340,000	4	310,000	29
계	188,700,000	586,366,838	314	15,060,000	868

김세만(42회), 이일건(46회), 박 은(49회)  
박종철(51회), 심우영(51회), 김명세(53회)  
이강철(53회), 김정진(53회), 하태철(53회)  
남동희(54회), 이종호(54회), 변희창(55회)  
박대순(56회), 허 환(57회), 김성종(57회)  
이택봉(59회), 김무현(59회), 추기근(60회)  
장순걸(60회), 김효종(60회), 서 성(60회)  
김영웅(61회), 문승백(63회), 임봉노(63회)  
권오성(63회), 장동환(64회), 허진일(64회)  
김병윤(65회), 이원호(66회), 박현태(66회)  
최주규(68회), 변우환(68회), 허재병(68회)  
이경호(69회), 윤진영(71회), 이병규(72회)  
임동철(72회), 무명

계66건 1,540,000원(누계:15,060,000원)  
※혹 착오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기회 순방 · 38회

# “우리는 6.25 전란속에서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들”

## 계성은 나의 분신이자 나의 전부... 아직도 모교 관심은 대단해

2006년 6월 19일 정오, 구 상서여상 앞 팔공다방. TV와 선풍기와 동양화... 그다지 넓지도 좁지도 않는 2층 다방은 고즈고즈 분위기였다. 이날 동창회보의 <동기회 순방> 약속 시간에 맞춰 건강하게 보이는 38회(회장 이원석) 선배님들은 한분씩 모이기 시작했다. 어제가 민족의 비극 6.25전쟁 반발 65돌을 맞은 날이었고, 그래서 38회는 마치 분단의 상징인 <38선>을 떠올리게 하는, 그 상징성 만큼이나 기구한 운명의 학창시절을 보냈다.

“느그도 내 나이 돼바라”하면서 권수보 선생님이 후배 대하듯 먼저 오신 동기생들에게 말하면서 조금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았고 이어 “동창회와 인터뷰 한다고 이원석이 나오라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하신 38회 선배님은 아직도 정정하였다. 이원석 회장은「시기적으로 보아 이사회 간담회 시간이 되어 마침 총동창회의 일로 겸사 소집했으니 오늘 많은 이야기 해달라」며 인사말을 했다.

100년의 계성 역사가 말하고 있듯 38회는 과도기라 할 수 있는 학창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졸업하지 못한 동기생들이 상당히 많다. 이념 관계로 퇴학, 전학이 많았고 6.25로 전선으로 간 동기생 대부분이 전사했다. 6.25가 발발하자 당시 상급생이던 6학년은 「총돌고 바로 전장으로 나갔던 때」였다. 수업보다 근로봉사 시간이 더 많았다. 대구역에서 <곰뽕> 타고 동촌으로 가서 동촌 비행장 확장공사, 격납고, 활주로 공사 등에 강제동원되었고 시대가 시대인지라 목총돌고 완전복장으로 가장 지구의 장작 내리는 작업에도 동원되었다.

38회는 입학할 때는 2개반이었으나 해방되던 그해 10월, 2개반을 추가 모집을 해서 4개반이 되었다. 처음 2개 반을 남북반으로, 추가 모집한 2개 반을 동서반으로 불렀다. 학급 명칭이 아마도 아담스관의 교실이 남북

로 있어서 남북반으로 부른 것으로 추측한다.

해방되자 당시 훈육주임이던 최영호 선생이 조회 모임때 <차려>란 우리말 구령을 못하고 <기차> 뜻인 <교스께>라고 구령 붙인 일도 있었다.

다방에서 장소를 진골목 <백록식당>으로 옮겼다. 운치있는 정원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식사 시간에 곁들인 반주는 자연히 화제를 풍성하게 했다. 건배잔을 채운 것은 맥주, 소주, 사이다로 다양하였다.

6.25 직후였다. 권오균(변리사) 선배가 헌병대에 근무하고 있을때 였는데 가두 모병에 강제 징집된 사람 가운데 계성학교 이기우 선생이 있었다. 권오균 동문은 이기우 선생을 알아보았는데 이기우 선생은 군복차림의 권오균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기우 선생을 특별 조사한다고 열외로 해서 보충대로 편입한 일도 있었다.

당시 짚신신고 등교했다. 뿐만 아니라 동맹휴학 등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한번은 서인제 선생의 영어시간이었다. 갑자기 교문에서 총탄 소리가 났다. 유난히 수업시간 침을 많이 튀어 천장보고 수업했던 서인제 선생이 잠시 후 <겁내지 마라. 헛방이다, 헛



▲ <백록식당>의 정원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인물도 많이 배출되었다. 고등고시에도 2명이 합격했다. 한국 교육 사상 처음으로 원어민 교육도 받았다. 당시 영어 회화와 영어 노래를 가르쳐준 선교사 부인인 캄벨씨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모어도 빠지지 않았다. 산부인과 원장인 노영하 선배에게 옆자리 동기가 “요즘 환자들이 많지 않제?” 라고 염려반 진담반으로 말하자 노 원장은 대뜸 “너들 오늘 집에가서 아 만들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왕성한 젊

국을 누비고 있는 박성대 총동창회장, 대구대학 총장 대행을 했던 박정옥 교수. 「늙어죽을 때까지 한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권오균 이룸영남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특히 지난 6월 4일 향년 73세로 별세한 우재승 전 자유민주연맹 총장에 대한 안타까움은 무엇으로 표현을 못한다. 모교 졸업 후 6.25 전란 중에 서울대 입학 1955년 졸업하고 미국 Barrington대학, Clark 대학, Cornell대학에서 정치학 석사를, 1976년 부산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미국이나 일본에 오히려 더 많이 알려졌으며 모교 재단이사도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그 열정과 의지가 아쉬워서임이다. 한때 신대식 선생이 계명대학으로 초창했으나 응하지 않은 일도 있었는데 결국 반공사상 때문에 두분이 의기투합 되었을 것이라고.

38회 동기회는 아직까지도 모교와 후배를 염려하고 있다. 남녀공학의 결과가 어떠냐, 동창회의 장학금은, 또 진학 관계는 어떠냐... 등이 그것이다. 공학하면 여학생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것, 남학생들이 원기가 없어 보인다는 것, 여자의 정기 탓 아닌가.. 끝에 앞으로 아이 낳으면 어머니 성 따라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까지 비약되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항은 <오래 사는 것>이다. 예전에 비해 평균연령이 늘었다면 그래도 안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 희망이자 바람이다.

글 · 이수남(50회)

## 요즘도 월 2회 모임을 가지며 노익장 과시의과대학에 12명이 입학할 정도로 수재 집단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 희망이자 바람이고

방>하는 바람에 결국 선생님의 별명이<헛방>이 되었다.

38회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요즘 매주 2회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10명 내외의 동기생들이 점심을 나누며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38회는 졸업때 의과대학에 12명이 입학했다. 8명이 입학한 경북중학교보다 많았다. 전시중이었으나

6학년 당시 담임은 문과반은 변정수, 이과반은 정성표 선생님이였다. ‘참 좋은 선생님 상’으로 지금까지 각인 되어있다. 청소년기의 성격 형성 과정에 두분 담임 선생님 외에 주경, 박목월, 이장식, 정시화, 김세현, 이기우 선생님들은 실력보다 제자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이원석 선생 경우 40여년 교직 생활하는 중 항상 그분들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학생 지도를 했다고 추억한다.

주경선생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썼다. 그것도 부드러운 서울 말씨로.

당시 교사들은 학생과 연령차이도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역할을 다했다. 그것이 계성의 전통이었다. 인정도 많았다. 그때는 낙제를 두 번하면 자동 퇴학이었는데 이기우(화학)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퇴학을 면하기 위해 점수를 준 일도 있었다.

반주를 몇잔 돌린 탓일까. 유

음을 신뢰하고 있었다. 한바탕 웃음 끝에 산부인과가 그러니 자연 소아과도 그렇고... 결국 요즘 젊은이들이 산부인과를 지원 안한다는 염려로 이어졌다.

오늘의 38회가 있기까지는 동기회가 창립되고 나서 임용만, 이재찬 두 전 회장의 노고가 많았다고, 1등 공신이라고 입을 모은다. 말 없이 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원석 현 회장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이원석 선생의 장모되시는 가화당 손복순 여사는 1982년부터 11년간 해마다 재학생들 10여명 등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한 일들도 아름다운 역사로 남아있다.

계성의 상징이 되다시피하고, 대동아 전쟁이 한창이던 일제 강점기, 일본 순사들이 수시로 우리 민족을 괴롭히자 큰 아버지가 일본 순사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는 일본 경찰 조질려면 힘을 길러야겠다는 각오로 유도에 입문한 유도 인생 60년의 권수보 선생, 동창회 장학재단을 위해 전



▲ 팔공다방에서 인터뷰 모습



인물

#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는 다르나,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다녔으나 신앙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

## 유운철(52회) PARASUCO 회장



2006년 6월 9일(금) 모교 강당에서는 PARASUCO 유운철(52회) 회장의 1일 교사 특강이 있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특강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선배를 초대하여 강의의 틀려주어 학생들에게 계성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주는 좋은 시간이 되어왔다.

유운철 회장은 강의 시작 전 「졸업 후 41년 만에 모교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부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길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기도를 드린 후 「부모님이 계성학교를 졸업하였으니 2대째 계성인입니다.」며 계성과의 인연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자신은 계성학교 재학 시절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음을 강조한 후 연세대 정외과를 지원하여 실패하고 동국대 경영학과에 진학 한 후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카펫 제조 공장에서 일을 했으며 이 6개월 동안 힘들게 일을 배운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경영 수업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후 불황을 거치면서 한 때

고향인 고령으로 귀향하여 집안일을 도운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 열심히 일했으며 사업은 번창하다가 또 실패를 했고, 이때 아이 셋과 어렵게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일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헤쳐나 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고 했다.

전도사인 동생이 교회에 가라고 해도 주님을 믿지 않았더니 재물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으며 25년 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루 일과 시작 전 전직원이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데 그 결과 2004년 매출 2800만불을 달성했으며 현재는 60명의 사원을 거느린 회사가 몇 개나 된다고 했다.

자신이 학교를 다닌 시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다고 회고하면서 선배 한 분은 경산에서 계성학교까지 3년간 걸어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은 지금 미국의 큰 기업에 기술 고문으로 있다며 물론 이처럼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지만 공부



▲ 일일교사로 모교를 방문한 유운철 동문이 대강당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움이 되고 지금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기술 전수를 하고 로얄티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것이냐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찾고 장래성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해 나중에는 몇 배의 힘이 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회장은 가족의 중대한 병을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나았던 경험과 현재 소망교회에서 고등부 일을 맡으면서 느꼈던 일들을 얘기해 주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훌륭한 동문도 많은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연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믿지 않는 학생은 믿으시고, 믿고 있는 학생은 더 열심히 믿어 주십시오.」라는 말로 강의를 마치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로 선배의 진심어린 충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글 · 한학동(64회)

## 학창시절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욱 힘들어 세계 시장에 외국어는 필수, 세계로 나갈 준비 해야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통해 경영 원리 배워

를 못한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 예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어렵게 신발 공장에 취직한 후 성실히 노력하여 실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 꼭 필요한 제품을 발명하여 회사에도 도

유회장은 선배로써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을 택할

다. 지금은 세계 시장입니다. 당연히 외국어는 필수입니다. 우리 계성은 세계 속의 계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학창시절에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



### 에이스톤 HDTV(UHF) 실내안테나

완벽한 HD 고화질 방송을 보여드립니다.  
세계적인 안테나 전문 엔지니어가 개발한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HDTV 실내수신 안테나로서 최적의 디지털 TV신호를 수신해 완벽한 HD화질을 지원 할뿐 아니라 UHF대역의 아날로그 TV신호 수신기능도 겸하고 있어 일반 TV 및 PC용 TV카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체형의 SIMPLE 하며 견고한 초박형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없는 제품입니다.

#### ■ 적용제품

- 디지털(HD/SD급) TV
- PC용 디지털TV 수신카드
- 일반 아날로그 TV 및 PC용 아날로그 수신카드(UHF대역)

A·STONE  
TECHNOLOGY

### (주)에이스톤테크놀로지

회 장  
이 재 우 (56회)

- 제조원 : 에이스톤테크놀로지 Tel.031-420-8800 / [www.astone.co.kr](http://www.astone.co.kr)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번지 안양메가밸리 811호
- 판매원 : 블루링크 Tel.02-2149-0060 / [www.av09.co.kr](http://www.av09.co.kr)

# 울산지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특산품 장생포 고래 고기 맛보다 더 좋은 것이 100년 계성의 모교애

## 정 명 수 (55회) 울산지부 회장



지난 6월 28일 오후 5시, 회보의 지부 탐방을 위하여 울산지부를 찾아갔다. 정명수(55회) 울산지부 회장을 찾는 길에 필자와 함께 황금식(55회), 강희수(56회) 동문이 동행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지부는 한때 “울산은 우리 계성동문의 손으로 지킨다”는 울산지부 동문들의 야심찬 패기도 있었지만 현재 300여명의 동문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으며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다.

지난 6월 6일의 재 울산지부의 가족체육대회는 10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여 하루를 즐겼는데 정만영(55회) 전 회장이 타올, 우산 등 기념품을 협찬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패도 전달하였다.

울산지부는 격월간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임 장소도 주로 동문들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그 외에 동문들의 길흥사에 참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골프 동호회, 산악회, 바둑회 등 친목회를 신설하여 지부가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23년간 직장 생활하다가 1997년도에 울산에 정착한 정명수 회장은 일행들「장생포 원조 할매 고래고기식당」으로 안내했다. 부회장 윤운회(55회), 허정(56회), 그리고 총무인 조은수(62회) 동문이 참석했다. 울산하면 장생포, 장생포하면 고래고기라, 특히 이 고래고기식당의 고래맛은 유별나서 정명수 회장은 외지의 손님을 VIP로 대접할 경우 반드시 이곳으로 온다고 했다. 얼마전 일본 손님을 이곳으로 모시고 왔는데 고래고기맛을 보더니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염채불구하고 한평반더 주문한 적도 있었다고.

현재 울산에 본사가 있는 공업용 가스 사업 동해가스산업(주) 부사장인 정명수 회장은 신설 사업으로 (주)코리아 에어텍

을 기획하고 설립하여 현재 부사장으로 있으며 울산 석유화학 외국인 공단내에 2007년 5월 완공 목표로 착공, 건설중이며 향후 또다른 영업을 구상중에 있다.

우리 나라는 국내 공업 가스 산업의 75%이상이 해외 자본이며 외국인 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자생적 내국인 회사는 소규모 대리점으로 전락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외국인 회사는 철저한 실적 주의로 시장을 관리함으로 국내 업체의 신규 진출을 철저히 봉쇄하여 신규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국인 자본금 150억원, 투자금액 500억원을 국내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출발, 신규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향이 문경이고 4대 독자인 정명수 회장은 모교 입학 시험의 예비 소집으로 처음으로 학교를 찾았을때 대학으로 착각했을 만큼 모교 전경이 좋았고 또 학교의 교정이 마음의 안식처까지 되었다고 추억한다.

“특히 잊지 못할 은사님은 독일어 김진대 선생님과 이경준 담임 선생님 이지요. 당시 이경준 선생님은 내가 결석일수가 많아서 1년 더 학교 다녀서 졸업



▲ 단란한 모습의 가족사진. (앞줄 좌로부터 차녀 유정, 부인 조명숙, 정회장, 장녀 유지, 뒷줄 3녀 필주, 장남 하연군)

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 입원했어요. 그동안에 친구 황호상이가 수시로 병원에 와서 수업한 노트를 내게 빌려주곤 했지요”

그뿐 아니라 1학년 당시 유도하다가 무릎을 다쳐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

특히 정명수 회장은 <참을 인(忍) 싱글 목표 9>란 특이한 철

일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 세계 속의 훌륭한 모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설립 이념의 하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교 선생님들의 후배양성에도 감사드립니다.”

가족은 부인(조명숙 여사)와 3남 1녀로 장녀는 울산 보람병

동문들이 병문안을 했지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지부가 기금을 조성하는 원년으로 삼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총동창회에 대한 기대랄까 희망 사항은 서울에서 23년 생활 끝에 1997년도에 울산 근무를 시작했지만 울산동창회는 최근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생포 특산 고래 고기와 소주맛 보다 더 좋은 것은 모교애가 아니겠는가. 앞으로 2개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신상품을 사업화 하여 평생 목표인 10개를 달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돈보다 일을 많이 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장래 희망을 그리고 있는 정명수 회장과는 만남은 단순한 지부와 만남이 아니라 울산이라는 산업도시를 만난 것 이상의 보람이었다.

울산지부의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정명수(55회) ▷부회장 : 김양준(57회), 이진종(58회), 박윤규(59회), 최광우(61회), 박오규(62회), 최광로(63회) ▷총무 : 조은수(62회) ▷부총무 : 정선용(65회), 김종섭(68회) ▷감사 : 김상현(57회), 이이균(61회)

글 · 김정길(56회)

## 다양한 사회활동, 로타리 클럽으로 장학금 지원 지난 울산지부의 체육대회는 100여명 동문이 참가 <참을인, 싱글목표 9>란 특이한 방법으로 건강관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고향의 아버지께서 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과 면담 끝에 졸업하게 되었지요. 나는 당시에 독감, 신장 결석 등으로 고생이 많았지요. 그때 대입 시험을 앞두고 이경준 선생님은 경북대 공대의 신설과이자 고분자학이 미래 과학이므로 저를 국내 최초의 고분자공학과로 추천해서 친구 노경호와 같이 원서를 내었고, 합격하게 되었지요. 입학 시험날에는 노경호의 형님께서 사진을 찍어준 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고 3년 입시 준비를 병원에서 했다

학적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즉 일상의 생활에서 가급적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참고 참는다는 것이다. 수도승도 지켜내기 어려운 <참을인 9>란 일을 지난해 12월부터 도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가족이 먼저 알 정도라는 것. 그리고 주 1회 <그린발기>를 하고 있는데 스코어보다 걷는 일이 목표다. 가족과 월 1회의 등산도 빼놓을 수가 없다.

“올해 모교가 개교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55회는 100주년의 중간에 있는 셈이어서 감개 무량합니다. 재학시에는 6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한

원에 근무하고 있다. 차녀, 3녀는 약사와 대학 재학중이고 막내 장남은 육군 특공대에서 제대,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다복한 가정이다.

정명수 회장은 사회 활동도 다양하다. 로타리 클럽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지급하고 있으며 <신망애육원>도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울산이라는 산업 도시의 특성상 모두가 객지 생활이므로 특히 동문들의 경조사 참여율이 높습니다. 최근 정만영 동문이 울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많은



## I 민선4기 동문 당선자를 만나다 I

## 청렴과 정직과 성실을 추구하는 삶을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저는 열심히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함축된 한마디에 생활의 지침이 있었고 사고의 근원이 있었으며 인생의 방향이 있었습니 다.

또 이 교훈에서 지혜를 깨닫고자 했으며 잘못된 엄한 훈계를 들었고, 공평과 정직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작년 4월30일 청도 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는 청렴과 정직을 기치로 하여 과분하게도 당선 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1년이 흐른 올해 5.31 지방선거에서 존경하는 우리 청도 군민들은 더 청렴하고 한결 정직하며 더욱 성실하라고 하며 저를 다시 청도 군수로 선출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자만 한 일이 없습니다만 제 생활과 생각과 인생에 있어 이를 실천 하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이 청렴과 정직과 성실을 추구함은 오로지 영원한 마음의 고향 계성의 푸른 동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리'

를 생각하며 기른 힘이었습니다.

선거는 당락이라는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낙선을 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저의 일 보다도 세기의 역사에 빛나는 모교 계성의 명예에 혹 누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선 의 영광을 안았으니 우선은 모교의 명예에 누가 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더 큰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청렴하고 정직 성실하게 군정을 수행하여 청도의 발전을 이루어 군민에게 보답하여야 함은 물론 적어도 모교와 6만여 동문님께 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두 번의 선거에서 선후배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머리 숙여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청도 군수 선거의 당선 이 조금이나마 영예와 영광이 있다면 이는 오로지 성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과 영원한 진리와 마음의 고향, 모교 계성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도군수  
이 원 동 (53회)

##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

안녕하십니까 !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 당선된 계성중·고등학교 60회 졸업생 임병현 입니다.

먼저 저의 당선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18만 남구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특히 저의 당선을 위해 애써주시고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계성중·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부모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돌려드리면서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함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나 우선 동창회보를 통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널리 해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남구청장으로서 동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남구 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구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저를 아껴주신 여러분들께 보답코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후 새벽 5시부터 지역내 등산로를 비롯한 재래시장, 복지시설을 두루 다니면서 만나는 우리 선후배 동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

이지 않았기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었고, 특히 모교 은사이신 경북대 김형규 박사님의 큰 가르침과 60회 동문 총무님을 비롯한 모든 동문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으로 흔들림 없이 선거에 임함으로써 오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남구청장  
임 병 현 (60회)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그리고 남구 주민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남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지역 발전에 큰 견인차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제게 보내주셨던 성원과 지지보다 더 많은 고견과 질책으로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인사를 드리기 전에 선후배동문 그리고 18만 남구주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남구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가정 에 내내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시대변화에 맞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



대구 북구 구의원  
김 중 옥 (66회)

안녕하십니까

금번 5.31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북구마선거구(북현1동, 북현2동, 검단동, 무태, 조야동)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북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중옥 입니다.

그리고 7.10 북구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사회도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계성 동문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성 동문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는 지방 행정의 올바른 감시자로서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발전된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북구의 사회분야, 도시분야, 환경분야, 보건분야 등의 예산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권익증진과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보다 큰 사명감으로 모교 100년 역사에 걸맞는 동문의 한사람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계성 동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르코는 국내 최초로 생긴 Guest House 입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장·단기 투숙객을 위하여 보다 안락한 휴식처와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합니다.



고품격 비즈니스공간의 시작  
이젠 마/르/코입니다.

GUEST HOUSE  
**MARCO M**  
www.marco.co.kr

대표이사

하 명 용 (58회 · 재구미 동창회장)

경북 구미시 원평동 307번지 Tel.054-456-3322 Fax.054-456-3345

# 한일 양국간의 밝은 면을 소개, 민간 교류를 촉진할 계획

## 한류 붐으로 한국인에 대한 인상도 달라져,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가져

박종철 (52회) 요코하마 총영사



우리 모교의 역사가 깊다 라는 기억은 항상 머리속에 지워지지 않지만 100주년이라고 하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동창회 모든 분들, 학교 임직원들 비롯한 재학생들에게도 축하를 보냅니다.

1962년 3월에 고교에 입학했으니 지금부터 44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모교의 인상이라고 할까요. 계성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 유도와 농구 실력이 뛰어난 학교, 상하가 엄격하지 않는(?) 비교적 자유분방한 학교, 다소 유복한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입학시험 당시 턱걸이, 달리기, 던지기 등 체력 테스트를 받았던 기억과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불리하게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조였던 때였고, 2학년 수업도중 “J.F 케네디”미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1963년11월)을 직접 라디오로 청취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당시는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수강하였고, 단어를 잘못 외어 선생님께서도 철판으로 만들어진 출석부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도 잊지 못할 추억 중의 하나이지요.

또 일반사회 책을 직접 집필하신 이일천 선생님의 책 한권을 전부 외우다싶이한 기억, 이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누구에게나 자상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수년 후 서울 신일고등학교로 옮겨 교장 선생님까지 하였고, 신일학교 재직하실 당시(1970년~) 서울 수유동 부근에서 다시 만나 지나간 고교시절을 회상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도 있으며, 3학년 담임이셨던 김진대 선생님은 보기만 해도 긴장되는 엄한 분이시면서 한편으

로는 다정하셨던 은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권수보 유도 선생님 덕분에 약한 체력을 단련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으며 미8군부대 인근의 권 선생님 개인도장에서 흑인들과의 연습경기도 아름다운 대화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고교 졸업후 대학과 직장 생활을 통해 많은 선배들을 만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만 90년대 중반기 동경에서의 동문회 모임도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동경 대사관에서는 외교통상부 우동호 선배(48회) 김병일(당시 경제참사관,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금융계, 기업체, 언론인 가운데는 임주재(전 한국은행, 현금감원), 김정식(당시 한화), 동아일보 특파원이었던 권순환(현 동아일보 경제부장), 동문 등 각계의 우수한 동문들이 머리 속에 떠오릅니다.

지금은 요코하마 총영사로 근무(2005년9월부임)하고 있지만 이미 84년부터 동경 우리 대사관에서 일등서기관 겸 영사를 거쳐 참사관, 공사사로 근무한 경험에 이어, 그간 동경과 서울을 번갈아 가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이 1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윤사마 나라에서 온 남성”으로 집단 박수 받기도 독도문제, 신사참배 등 외교현안에 착잡한 심정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아

요코하마는 동경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인구 360만의 대도시로서 일명 문화 도시, 동경의 베드타운이라고도 합니다.

한국민들에게는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가요곡)로 널리 알려져있기도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며 항만 도시로서 온천지인 하코네, 아파미 등지가 관할 지역 내에 들어 있어 살기 편한 곳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주로 교민(약 45,000명?) 영사 업무를 비롯하여 한일 친선 활동 그리고 문화 교류 활동을 하면서 민단의 본국 정부 접촉지원 주요행사 참석, 우리 지자체와 일본 지자체 간의 교류지원 활동, 한류 붐으로 인한 연예, 공연활동 등에



▲ 요코하마 총영사관 전경

직·간접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연가, 대장금 등 우리의 드라마가 일본의 메스메디아를 통해 선풍적으로 관객을 동원하면서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 붐을 일으켰고, 한국인에 대한 인상조차도 바뀌어 나갈 만큼 밝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가 2005년1월 규슈 지역을 여행하면서 관광버스에 동승한 일본 중년여성 10여명으로부터 한국인이라는 이유하

나 있어 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특히 동경대사관 근무 기간중 김포-하네다간 셔틀편과 금년3월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협정 체결 등에 관해 지원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외교현안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불편해진대 대해서는 착잡한 심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 국민들간에는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와 생활 습관의 차,

그런 의미에서는 이곳 생활을 마감하더라도 그간 허물없이 지냈던 정치, 외교, 안보 그룹과 언론계를 비롯한 재일동포 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인식의 차를 좁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또 양국 간의 밝은 면을 소개하면서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47년 경주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거쳐 진학을 위해 대구로 진출하면서 첫발을 내디딘 “계성”이라는 모교에는 강한 인상과 긍지도 느끼고 지내 왔으며, 앞으로도 동창회와 계성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은 처와 딸 2명이 있으며 장녀(동시통역사)는 이미 출가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녀는 미혼으로서 서울의 외국계 회사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이라면 매일 1시간정도는 속보운동과 가벼운 차림의 열차 여행을 즐깁니다.

다시 한번 계성100주년을 축하드리며 동창회에 하고 싶은 말 보다는 제 자신의 생활관이 라고 할까요, 신조라고 할까요.

“갖고 있는 것 (건강,가정,가족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마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한다(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는 자세,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머리 속에 담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윤사마(배웅준) 나라에서 온 남성”이라고 집단 박수를 받은 경우도 있고, 금년 3월 초 이 지역 교민 모임에서 한 젊은 교포가 귀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한류 붐 때문에(드라마에 취해서) 귀화를 취소했다는 화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금년 5월 겨울연가에 등장했던 박용하의 요코하마 공연에는 1일 1만명씩 입장해 이를 간을 공연한 바 있고, 대장금 최상궁(견미리)의 요코하마 공연에도 약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광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고 한류의 힘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우리 연예인들의 무분별한 공연에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도 가끔

국민성의 차가 크다는 점을 느끼면서 시간 여유를 갖고 상호 교류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일본내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국력과 경제력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해야 할 역할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느낍니다.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크나 최근의 국제적인 현안등으로 인해 일본내에서는 안전한 사회,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 제약도 감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을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 동 창 회 동 아 리 소 식

## 개교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 기별 축구대회

지난 5월 7일(일) 강변축구장에서 '계성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 기수별 축구대회'가 계성동문축구회(회장 75회 박준모)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 대회에서는 69회부터 78회까지 총 10개 기수 300여명의 졸업생과 가족이 참석했으며, 대회 우승은 69회, 준우승 72회, 공동3위는 71회와 76회가 각각 차지했다.

대회 입장식에는 모교 정인표 교장, 총동창회 김정길 사무국장, 대구시 생활체육축구연합회 이정현(61회)회장이

참석하여 이 자리의 선수단을 격려해주었다.

이 번 대회는 강변축구장의 천연잔디 구장과 인조잔디 구장에서 열려, 대회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좀 더 우수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성 가족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다음 대회에는 더 많은 졸업생들의 관심과 참여로 발전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 입장식 광경

## 개교 100주년 기념 총동창 산우회 등반대회

5월 14일(일), 아주 쾌청한 날씨 속에 계성총동창회 주최 총동창 산우회 주관 개교 100주년 기념 기별 등반대회가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대덕산(603.7m)

일원에서 실시되었는데, 특히 이번 대회에는 총 20개 동기회에서 31개 조로 구성된 선수단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선수 및 응원단을 합친 총 400여명이 참여하였다.

오전 9시30분 월드컵경기장 시민광장에서 시작된 개회식은 대회장인 황성길(51회) 회장의 대회사 및 손용식(60회) 계성중학교장의 축사와 더불어 계성100년의 우렁찬 교가 제창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또한 총동창산우회 남기진(51회) 등반대장의 대회 코스 안내와 더불어 노규영(71회) 제3등반대장의 장비 검열이 이어졌으며, 오전 10시30분 각 기수별 파이팅! 함성과 함께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 되었다. 금일 등반대회의 코스는 월드컵 경기장 뒤편 자동차극장 동편의 진입부에서 시작하여 약30분간의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 고 453봉과 517.6봉을 지나 만보정(519.6m)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554.4봉을 거쳐 최고봉인 대덕산(603.7m)을



▲ 등반대회 개회식 모습

거쳐 자동차극장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이루어졌다.

선수 코스는 산행거리 약 8km에 총 산행 시간 4시간30분 정도 소요되며 총 4개의 포스트를 거쳐

며 심사위원으로부터 채점을 받았으며, 지정된 코스 준수, 자연보호, 협동 및 단결 등의 포인트에 기준해 채점하였다. 또한 4개의 포스트에는 산우회 원로 선배님들이 수고하셨는데 김세만(42회), 채근수(44회), 류청웅(48회), 윤재호(60회), 동문등이 수고해 주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등반대회는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선수 및 가족들이 속속 복귀했고, 드디어 오후 3시30분에 폐회식이 거행되었는데 시상은 황성길 회장이 조별 1, 2, 3위 및 모범상, 감투상, 장려상의 순서로 시상하였으며 금년은 100주년 기념이고 많은 팀이 출전하였기 때문에 시상을 확대했다.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C.B팀-1등 55회, 2등 53회, 3등 54회, 감투상 52회, 모범상 51회 ▷O.B팀-1등 60회, 2등 63회, 3등 65회, 감투상 62회, 모범상 61회 ▷Y.B팀-1등 71회, 2등 70회, 3등 69회, 75회, 장려상 72회가 차지했다.

## 개교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 기별 테니스대회

5월의 화창한 날을 맞이하여 경북대 테니스코트에서 총 15기 기수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무사히 대회를 치루었다.

당초 5월 7일로 행사가 예정되었는데 비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참가 동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5월 14일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이다.

100주년 행사답게 전부 그동안 갖고 딱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열한 승부전을 펼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다.

문득한 선수배 간의 정을 듬뿍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특히 최고 기수인 48회 선배님의 열성적인 경기 모습은 타 기수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올해는 64회 기수가 주관이 되어 대회를 치루었는데, 여러가지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다. 물론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



▲ 테니스대회에서 우승한 YB팀 69회

만, 3개월 전부터 대회 준비를 위하여 64회 테니스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여러방면에 동분서주하여 큰 대과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대회 마지막 행사로 치루어진 행운권

추첨은 다양한 상품을 듬뿍 준비하여, 여러 동문들이 골고루 받아 갈 수 있게끔 배려하여 많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끝으로 우렁찬 계성학교 교가를 부르면서 내년 16회 대회를 기약하며 서로를 아쉬움을 달래면서 석별의 정을 뒤로한 채 계성 100주년 기념 테니스대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날 성적은 다음과 같다.

▷C.B팀-1위 48회, 2위 51회, 3위 53회 ▷O.B팀-1위 67회, 2위 64회, 3위 64회 ▷Y.B팀-1위 69회, 2위 72회, 3위 68회

## 개교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 기별 바둑대회

2006년 계성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계성학교 총동창회 장배 바둑대회가 6월 6일(화) 오전 10시 대구 시내 덕영치과 병원(원장 56회 이재운) 7층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이순(59회) 계성 기우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빈으로 참석한 정인표(56회) 모교 교장, 김정길(56회)총동창회 사무국장을 위시하여 170여명의 행사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100년을 쌓아 온 저력에 점화를 하고 높이 비상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계성기우회」는 동호인 모임의 하나로써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총동창회가 추진하는 각종 100주년 기념 관련 사업과 행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며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인표 모교 교장이 축사와 함께 학교 근황을 소개했고, 계성기우회 초대회장이었으며 「대한바둑협회」수석 부회장인 이재운 총동창회 부회장은 "지난 해 11월 창립한 대한 바둑협회가 5월 16일자로 대한체육회 준 가맹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우리가 대한 바둑협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



▲ 덕영치과병원 대연회장의 대국장면

며 더불어 오늘 대회가 성대히 끝날 것을 기대합니다."고 했다.

한편, 경북중·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축하 화환이 놓여 있는 대

회장에는 6명의 병원 직원들이 대회를 위해 봉사를 하였고 2대의 대형 냉장고에는 각종 음료수가 비치되어 있어 참가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건물 6층에 있는 식당에는 잘 준비된 음식들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대국 시작 전, 이 대회를 위해 박성대(38회) 총동창회회장 50만원, 배영욱(58회) 계성기우회 전임 회장 30만원, 이순 계성기우회 회장 50만원, 이재운 계성기우회 초대회장 고급 앨범 150권 등 다수의 찬조가 있었다.

이 날 성적은 아래와 같았다.

▷CB조 : 우승 55회(김준, 박범준, 김준호, 이형석, 김진호), 준우승 54회, 3위 53회 ▷OB조 : 우승 59회(정연길, 현철영, 장세일, 하대현, 이영종), 준우승 58회, 3위 60회 · 64회 ▷YB조 : 우승 71회(황금식, 정동필, 나문찬, 이형래, 조지환), 준우승 72회, 3위 69회

## 모교식

■ 개교100주년기념  
계성한마음큰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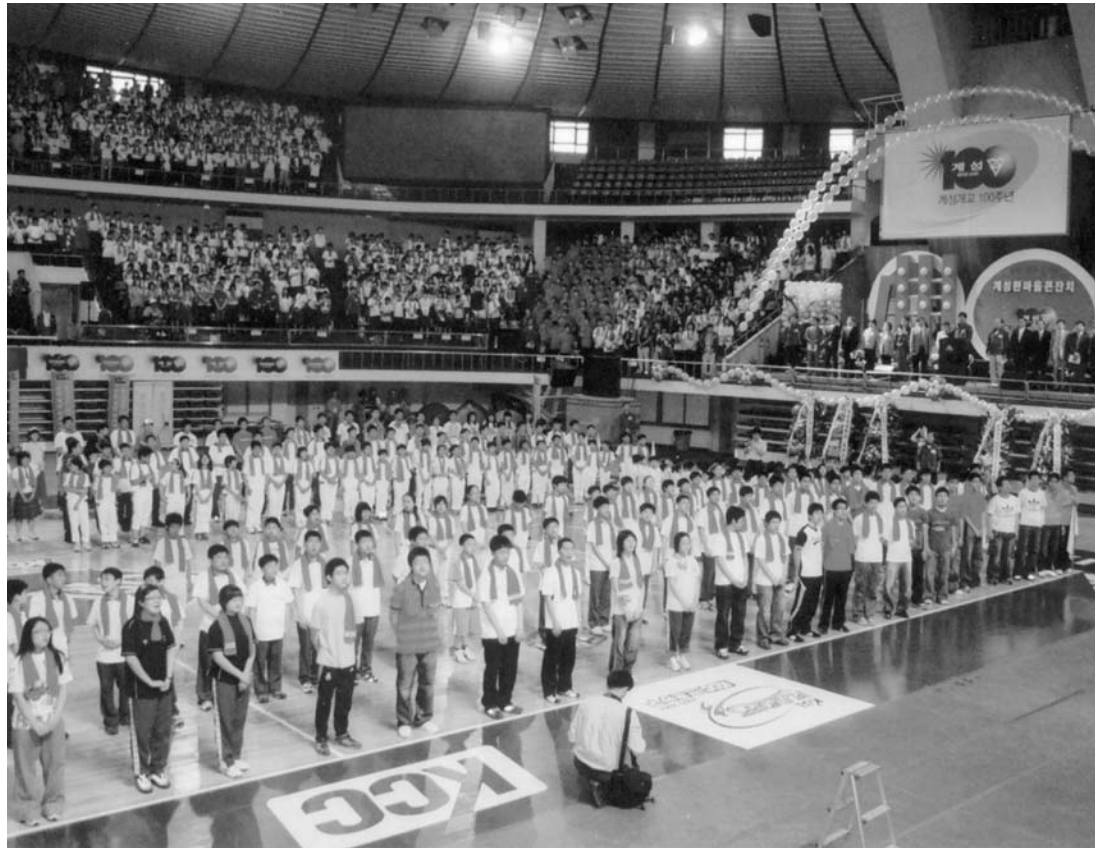
2006년 5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대구 실내 체육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계성 한마음 큰 잔치가 열렸다. 계성 유·초·중·고등학교가 주최하고 계성총동창회와 학교법인 계성학원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총동창회 등 3,500여명의 가족이 참가하여 계성 100주년을 축하했다.

행사 내용은 1부 축하공연, 2부 개회식, 3부 화합마당, 4부 폐회식 순서로 이어졌는데 1부 축하행사에는 관악연주와 사물놀이(고), 우린 하나 되어(유), 흥겨운 전례놀이(초)가 공연되었고 2부 개회식에는 입장식과 개회식 그리고 선수대표 선서가 있었다. 10시 30분부터 열린 3부 화합마당에는 화합 한마당(몸 풀이 체조, 통합 응원전), 한마음 경기(유치원의 아빠와 함께, 초등학교의 미래를 당기자, 중학교의 찬양울동 공연, 고등학교의 꼭지점댄스 월드컵 응원. 초등학교의

뭉치자 한마음)가 있었고 중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 한마음 경기(중·고 학생들의 농구 경기, 4인 5각 경기, 왕맹기 꼬기, 장애물 릴레이)와 화합 한마당 2(축하공연, 장기 자랑, 대동놀이 한마당)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를 맡은 이벤트 회사에서는 삼성 라이온스의 치어리더 4명을 동원하여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벌어진 행사 내내 응원전을 주도하며 행사에 활기를 더하였다. 교직원들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들은 각 반별로 자기들 반의 고유한 티셔츠를 입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도 유니폼을 입고 참가하여 스탠드에 앉은 모습을 본 초청 인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고, 행사가 진행될수록 참가한 학생들도 점차 한마음 큰잔치에 동화되어 응원에 열중하였다.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또 예정되어 있지만 계성가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되는 행사는 바로 이날 행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은 청·백전으로 치루어 진 각종 행사에서 열렬히 응원전을 펼쳐 보여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야말로 응원의 메아리가 실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공연에



▲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계성 한마음 큰잔치 개회식 모습

참가하는 학생들 또한 내용이나 복장을 통해 우리 전통의 문화와 신세대의 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100년 전통의 계성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스탠드 상단에서 내려다 본 실

내 체육관 전체의 모습은 100년의 전통 속에 베어나는 장중함과 미래를 향해 힘차게 약진하는 내일의 형상이 잘 조화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 되는 장면이 연출되어 대회를 주관한 계성인, 행사에 참가한 계성인, 초청된 인사

들은 물론이고 행사 진행을 담당 한 이벤트 회사의 직원들조차 계성의 잠재된 힘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30분 종목별 성적 발표와 시상 그리고 교가 제창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 공부방 개설

모교에서는 과거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모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고자 2004년 겨울 본관에 1개의 공부방을 만든 뒤 곧 이어 신동산관에 2개의 공부방을 만들었다.

이 공부방에는 각각 60여개의 개인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개인 좌석에는 사물함과 스탠드

그리고 듀어백이 달려 있어 장시간 공부에도 피로를 덜 느끼도록 준비되어 있다.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진 3개의 공부방에는 현재 고3학생들이 밤 11시 30분까지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있다.

한편,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도 계성빌딩 6층에 각각 30개의 최신 시설을 갖춘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흔쾌히 장소와 시설을 마련해 주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동문목사 초청  
대수양회

학창 시절 우리들에게 깊은 신앙심과 감동을 전해주었던 대수양회가 올해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모교에서 동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열렸다.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열린 수양회의 첫째 날 첫 시



▲ 대강당에서 열린 대수양회

간에는 윤희주(49회 대구 성덕교회 담임목사)목사가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로, 둘째 시간에는 권순웅(61회 경기도 주다산교회 담임목사)목사가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주제로, 셋째 시간에는 박현식(57회 서울 대

길교회 담임목사)목사가 「하나님의 교과서」라는 주제로, 둘째 날은 박재천(50회 서울 명지고교목실장)목사가 「감사의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여 재학생들에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 쾌적한 공부방 시설들

MUNHWA  
MEJU  
SINCE 1958

문화메주

인터넷 주문 : www.munhwameju.com

대표 김은철 (63회)

전시판매장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1056-1

TEL : (053)656-0520 FAX : (053)651-7717

H.P : 011-503-4093

공 장 : 경북 경산시 백천동 180-1

TEL : (053)815-5221



## 지 부소식

## ◆ 재부지부



2006년도 재부계성학교 총동창회의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산 상계봉 산행을 하기로 하고 5월 5일(금) 초과일 금정산 입구에 위치한 광명사 유치원에 오후 1시부터 집결하여 대회장(50회 이두영 회장)의 인사와 총무의 안내에 이어 2시부터 정상을 향해 원로기수별로 출발했다.

산행은 47회에서 76회에 이르는 총 80명의 동문이 참여하였으며, 각 기수대표가 깃발로 그룹을 리드해가면서 남문을 1시간 만에, 정상은 30분 후에 도착하였고 정상에서 부산권 전역을 30분간 내려다보며 감상한 뒤 하산하였다.

남문에서 각 기수별 단체사진, 정상에서 전동문의 단체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특히, 산행 중간과 정상에서 61회 동문의 지도로 산을 좋아하는 이들의 여러 포크송을 작은 기타에 맞추어 합창하는 시간

도 가지게 되어 많은 갈채를 받았다.

하산 후에는 금정산성 음식점에서 만찬과 함께 기별 노래자랑 등으로 2시간정도 계성학교의 우애를 다졌고, 최다참석 기수상 1, 2, 3위, 부부 및 가족단위 참가상 등 상품 전달과 함께 교가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두영 회장님은 마라톤 훈련중에 다친 다리의 부상으로 산행이 어려웠지만 남문까지 동행하여 끝까지 산행을 지휘하였으며 이후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재부 동문 전체가 이회장의 패유를 빌고 있기도 하다.

## ◆ 뉴욕, 뉴저지 지부



여기 날짜로 5월 29일(미모리얼 데이)에 뉴욕, 뉴저지 계성동창회 야유회를 한다. 나도 처음 가보는거라 기대가 만땅이다. 여기 동창회장은 58회 정덕성 동문이다.

올해초 동창회 신년 모임에 갔더니 주로 원로분들이 많더라. 그럼에도 동창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다들 나이를 잊고 하나되는 분위기였다.

내일도 부디 많은 분들의 가족이 오시

기를 기대해 본다.

뉴욕, 뉴저지 춘계야유회를 Rockland Lake State Park에서 조촐하게 그러나 재미있게 보내고 왔다.

박동화는 피정 가서 못하고 이수과랑 같이 갔다.

둘다 마누라는 두고 갔는데, 선후배랑 족구도 하고, 소나기 속에서 커피도 마시고, 아예 저녁까지 먹고 온건 좋은데 여기서는 일체 알콜이 없더라.

좋은건지 어쩐지 모르겠다. 수과랑 듀엣으로 소양강쳐녀도 한국 불렀다.(술 안 먹고 노래 부르려니 원...)

날씨는 바람도 안 불고 억수로 더웠고, 모처럼의 연휴라 대개 떼대로 놀러 가셨는지 참석인원은 별로이나, 바베큐는 일품이었다.

공원이 얼마나 큰지 모임 장소 찾느라 둘이서 좀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55회 정인국 선배의 토크연주도 일품이었다.

다들 동문이라는 인연 하나로 이국에서도 하나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보기에 좋더라.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점심 먹기 전에 찬송가 한 6곡, 기도도 4번인가 하는 바람에 교회에 일체 가지 않는 나로서는 조금 지루했다고나 할까.

## ◆ 칠곡지부

3월 25일 저녁 7시 왜관을 소재 삼부윗집에서 회원 34명이 참석하여 회장 이웅상(46회), 부회장 김덕태(50회), 김덕수(50회), 서광수(54회), 총무 박경수(66회)를 선임하였다.

이번 모임에서는 그동안 소원했던 동

문 관계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며, 많지 않은 동문이지만 자주자주 만나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기로 결의 하였다.

5.31 지방선거에서 이길수(51회)동문이 석적면 군의원으로서 당선되었으며 7월에는 칠곡군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하였다. 칠곡군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서광수(54회)동문이 칠곡군청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하였다.

## ◆ 재포지부



6월 6일 포항 우현동 대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교100주년기념 제14회 재포항 계성동문 가족 체육대회 겸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모교 교장 정인표(5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김정길(56회) 동문과 정형용(35회) 원로선배님의 143명 동문과 가족 포함 224명 참석하였다.

배구, 피구, 윷놀이, 줄넘기, 2인삼각 달리기 등 흡수와 짝수 기수별 대항등 다양한 경기와 모교 개교100주년기념 및 월드컵 승리를 위한 꼭지점 댄스로 참석자 전원의 몸풀기 운동으로 시작하여 경쾌한 리듬에 맞춰 전 경기를 진행하였다.

## 기 별소식

## ◆ 제44회

△회장: 이 준

△총무: 김기봉

4월 28일(금) 12시 신일회 이사장 초대 김문선 은사님 부부와 동기회원 18명이 참석하여 점심식사와 계명대의 안내등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5월 18일(목) 11시 팔공산 동굴식당에서 동기회 정기 야유회를 회원 22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으며, 7월 17일(월) 11시 30분 정통 원두막 보양탕에서 동기회 보양탕 모임을 가졌다.

## ◆ 제54회

△회장: 나정수

△총무: 정대우, 최정태

5월 5일 동구 구암동 대성고기촌 랜드에서 봄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39명, 부인 22명, 자녀 1명, 모친 1명, 총 63명이 참석하여 기념품 증정 및 행운권 추첨도 실시하였다.

## ◆ 제55회



△회장: 이형우

△총무: 박수향

6월 11일 서울 인왕산에서 70여명의 동기들이 모여 대구·서울·원주 합동 등반대회를 가졌다. 전날의 천둥, 낙뢰가 우리들의 산행을 시기하듯이 퍼부어 마음을 우울하게 하더니, 새벽에는 화창하게 맑은 날씨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했다.

들뜬 기분으로 한양으로 향한 버스 안에서 즐거운 산행에 기대가 많았는데 한양에는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니 어찌하오리이까?

그래도 버스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그치니 이 어찌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읍니까? 인왕산에 올라 청와대를 발 아

래로 내려다보니 한결 마음이 시원한 것은 또 무슨 영문인지?

청계천의 새로운 모습에 감탄하며 그 역사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양의 반가운 친우들 만나 오랫동안의 회포를 푸니 시간가는 줄 몰라 술이 사람을 먹기 전에 다했다 하여 아쉬움을 남긴채 버스에 올랐다.

## ◆ 제57회



△회장: 배광순(대구), 하승만(서울)

△총무: 정병수(대구), 배종민(서울)

지난 5월 14일 서울·대구지부 합동으로 2006 문경세대에서 단합 야유회를 가졌다. 지난해 10월 합동체육대회를 200여명이 모여 워낙 성대히 치렀지라 인원 참석에 걱정했으나 예상을 깨고 이번에도

14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30분에 문경 3관문에서 만나 간단히 소주와 음료로 해후의 기쁨을 나누고 1관문을 향해 행진을 하였다.

비 온 후라 5월 문경세제 신록과 동기부부의 울긋불긋 등산 복장의 긴 행렬은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었다.

서울 배종무는 마치 아프리카의 긴 누우 때 행렬과 같다고 했다. 누우 때는 물을 마시고 행진 하지만 우리는 주막에 들려 조깅술을 마시며 행진했다.

약 3시간 행진 끝에 1관문 이화정식당에서 여장을 풀었다. 산채비빔밥에다 새벽에 잡아 요리한 30분짜리 돼지고기 맛이 FANTASTIC하다고 극찬을 했다.

식사 후 여흥시간에는 대구에서 준비한 와이셔츠 65개, 서울에서 준비한 금국수 20개, 가전제품 8점을 선물로 내놓았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여성회원 등산바지 및 T셔츠, 남성회원 T셔츠도 전원에게 지급되었다.

대구 배광순회장, 서울 하승만회장의 물품 및 현금찬조가 20여명이 되고 그 금액이 1,000만원 상당이다. 일일이 명단 기재 못한 점 양지해 주시고 전 회원을 대신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수고해 준 여성

날마다 좋은 집

Everyday happy house

대표 박 훈 동 (64회)

“음식 만큼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회갑연, 돌잔치, 생일 등  
모든 행사 환영, 차량대기

예약 전화 (053)766-4111~2



회원, 싱글로 참석한 회원, 동기 대신 참석해 준 여성회원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5시 공식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에 모였다.

헤어짐이 못내 아쉬워 맨바닥에 앉아 남은 술을 다 비우고 이재명 회원의 멋진 지휘 아래 문경 산자락이 흔들리도록 교가를 합창했다.

올 가을 100주년 기념 체육대회 행사에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하며 헤어졌다.

#### ◆ 제61회



△회장 : 예병국

△총무 : 배영호

6월 6일 박용배동기의 영천농장에서 72명의 동기들이 모여 61동기회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모교 개교10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동기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박용배부회장 내외의 철저한 준비덕분에 아주 맛있고 풍성하게 대접을 받았고, 경관이 수려한 농장 구경도 하고 동기들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소와 음식을 제공한 박용배 동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 제62회



△회장 : 김철봉

△총무 : 김홍대

7월 8일 오후1시 가창 우록 대림식당에서 동기 40명, 부인 14명이 모인 가운데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영주, 문경, 김천, 구미에서 여러동기가 참석한 뜻 깊은 하루였다.

#### ◆ 제63회

△회장 : 이두복

△총무 : 김현철

5월 26일 2/4분기 이사회를 이상호 동기가 운영하는 지산골왕갈비(수성4가)식당에서 24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 안건은 졸업 30주년 기

념 행사 개최 건과 총동창회 이사회 선임 건이었다.

#### ◆ 제65회



△회장 : 정재원

△총무 : 서태고

5월 27일(토)~5월 28일(일) 대명콘도에서 「2006년도 계성 65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정재원 동기회 회장과 남병현 재경회장이 전국 동기회 임원들과 동기들을 일년에 한번정도, 함께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한 워크샵 행사는, 작년 강원도 횡성의 만남에 이어 이번 단양 대명콘도에서, 두번째의 만남을 가졌다.

작년에는 대구 11명과 서울 6명이 참석 하였으나 이번 모임에는 약 40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특히 대전, 구미, 포항, 울산, 당진 등에서 활동하는 동기들이 대거 참석하여 동기회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 되었음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는 회장과 수석총무 이하 각 총무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치밀한 행사준비로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한 모범적인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특히, 서울과 대구에서 골프를 즐기는 친구들이 사전 조를 편성하여 골프를 즐긴 후, 바로 워크샵에 참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왔으며, 포항에서는 손수 일 포항동기회 회장과 권순진, 홍성장, 박창현, 류상진, 이병무 동기가 워크샵을 참석하기 위해 사전 모임을 갖고, 6명 전원이 참석하여 모임이 더욱 알 찼으며 대전의 서동호 회장은 토요일 진료도 접고 장진호 동기와 버스로 먼 길을 오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또한 울산의 정선용 회장은 전날 직원들과 대전 회의에 참석하고 워크샵 참여를 위해 직원들을 단양으로 데리고 왔으나 직원들과 함께 하지않고 동기들과 자리를 하여준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서태고 수석 총무는 빔 프로젝션을 준비하여 홈페이지에 올렸던 동기회 활동과 동기동정 및 사진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권택성 총무는 빔 상영을 위해 밤늦은 시간 영주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상영을 도와 주고 몇 장의 사진을 찍은 후 바로 영주로 가는 눈물겨운 투혼을 발휘하였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차기 회장 내정자인 구자일 수석 부회장이 함께하여 내년

워크샵에는 80명이 모이는 자리로 만들자며 폭탄주를 모든 친구들에게 일일이 따루었고, 회장을 비롯 많은 동기들의 찬조와 모모씨의 몸은 조금 고달프나 직접 식사를 해결하자는 주장으로 저녁과 아침을 제조 함으로써 경비를 상당부분 절감하였던 것 같다.

작년에도 콘도를 예약하고 대금을 홀로 지불한 남병현 회장은 올해도 방 5개 비용(약 40만 이상)을 책임져 주어 감사를 드린다. 뒷정리와 설거지를 도맡아 해준 서의택, 서태고 두 서총무들도 소개에 빠져서는 안될 분 들이며, 수송을 책임진 김기태 총무, 노래로 기쁨을 준 임익선 수고 하였고, 일일이 다 소개 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어려운 발걸음한 친구들, 다음 동기회 모임에도 적극 참여 하여 주고, 종교 활동과 각종 행사로 마음은 있으나, 몸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고문들과 총무들 그리고 동기들께 소식을 전한다.

#### ◆ 제66회

△회장 : 이희재

△총무 : 정광훈, 정취진

66회 동기회 하계 휴양소를 7월 22일(토)12:00~ 23일(일)12:00 (1박2일간) 다모아펜션(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전관을 임대하여 개최 하였다.

#### ◆ 제69회

△회장 : 안재갑

△총무 : 신승철

6월 4일 (일요일) 09시부터 모교운동장에서 6월의 따뜻한 날씨속에「2006 동기가족체육대회」를 잘 마쳤다.

날씨도 우리들의 편에 섰는지 덥지도 춥지도 않게 적당히 바람도 불어주어 좋았다.

축구, 족구, 배구 여러 종목을 같이 웃으면서 시합을 진행했으며 승부와는 별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준비된 음식으로, 별 반 달라진 것은 없지만(미성만두, 족발, 무침회) 그래도 김도균 친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준 덕분에 배불리 먹었으며 준비된 선물은 다 나눠주고도 엄첨 남았다.

저녁 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는 시간까지 같이 시간을 보낸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행사 때에는 같이 자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 일정은 8월에 가락야유회로 부곡하와이로 갈 예정!! 69 동기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참석속에서 동기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69 계성 동기회 화이팅 !

6월 6일(화) 재경69회 동기회 가족체육대회가 한강변 반포지구에서 개최되어 대구동기회에서 5명이 참가하였다.

총동창회 체육대회 참가하여 축구 우승, 테니스 우승, 등반대회 3위, 바둑 3위

에 입상하였다.

6월 8일 경주, 포항지부 결성식을 가졌으며, 격월로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고 지부장은 신병득 동기로, 경주 연락책은 이춘식 동기로 결정되었다.

6월 15일 울산지부 결성식을 가졌으며, 지부장에 서진욱 동기가 선임되었고, 회비부담을 줄여 많은 동기 참여를 유도하자고 했으며 행사장소를 호텔이 아닌 모교 대강당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홀커밍데이 준비를 위한 지부 결성식을 진행하여 울산지부(서진욱), 경주 포항지부(이춘식)를 각각 결성하였으며, 홀커밍데이 준비를 위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돌입하였다.

#### ◆ 제70회

△회장 : 김형곤

△총무 : 박준석, 김진혁

6월 10일~11일 1박 2일로 동해안 양포(감포~구룡포사이)에서 최고 전망좋은 펜션을 통째로 빌려 '06년도 하계휴양회를 가졌다.

동기 40명을 포함하여 가족 1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었다.

은어잡이, 보물찾기, 폭죽놀이등으로 행사를 준비하여 우리 가족과 아이들에게는 또하나의 잊지못할 추억거리를 제공하였다.

재경70회에서도 7월 8일~9일 서해안 영종도 왕산 해수욕장에서 1박2일로 갯벌 체험을 통한 하계휴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대구에서는 40여명이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기로 하였다.

#### ◆ 제71회

△회장 : 박범준

△총무 : 김창일

2006년 계성 71동기회 하계휴양회를 8월 26일(토) 오후 3시~27일(일) 정오 12포항 남호해수욕장 (숙박-블루오션파라다이스펜션)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 제76회

△회장 : 김경운

△총무 : 배성우

7월 8일 19:00 성서의 아로마 웨딩 부페 뒤쪽의 향목복어 집에서 동기회를 개최하였다.

#### < 알 림 >

##### ◆ 개교 100주년 기념식 및 음악제

- 일시 : 2006년 10월 13일(금)
- 장소 : 대구실내체육관

##### ◆ 개교 100주년 총동창가족체육대회

- 일시 : 2006년 10월 14일(토)
- 장소 : 계명대학교 대운동장



(주) 유 레 카  
EUREKA, INC.

代表理事

손 중 배 (64회·총동창회 부회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260-3번지

TEL : (053)587-5400 FAX : (053)587-4400

E-Mail : eureka@eurekaopt.com

Internet : http://www.eurekaopt.com



## 인물정



▷**김광원**(46회) 한나라당 김광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 국회의원이 6월 26일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김경진**(47회) 신라섬유(주) 대표이사는 6월 16일 팔공정보 문화센터 초·중·고 학생응변대회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받고 심사후 입상자를 격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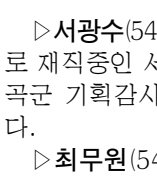
▷**김대곤**(50회) 한영산업 대표이사는 대구음악제의 6월 3일 연주에서 기업인으로 깜짝 지휘를 하였다.



▷**윤동한**(52회) 한국콜마 대표이사는 The Face Shop에 네일케어 화장품을 공급하던 믹스엔매치 인천 공장을 인수했다.



한국콜마는 70억원을 들여 인수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300만개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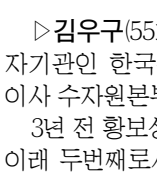
▷**홍호용**(53회) 동우 E&C 대표는 카자흐스탄에 부동산 건축 관련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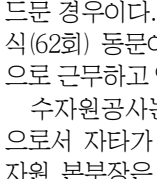
▷**서광수**(54회) 칠곡군청 총무과장으로 재직중인 서동문이 7월 24일자로 칠곡군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최무원**(54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대구센터장으로 재직중이던 최동문이 8월 1일자로 동 연구원 본부(서울) 시험평가본부장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김신길**(54회) 대구시장로 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김우구**(55회) 동문이 이사승진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5월 12일자로 이사 수자원본부장에 승진, 취임하였다.

3년 전 황보성(52회)동문이 이사를 지낸 이래 두번째로서 수자원공사 내에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리고 지난 1월에도 최원식(62회) 동문이 1급으로 승진,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의 물전문기관으로서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며, 이중 수자원 본부장은 소양강댐, 안동댐 등 우리나라의 다목적 건설 및 관리, 하천사업 등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는 계성동문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계성동문들이 핵심인력으로서 공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관련기사, 우측 상단 축하메시지)



▷**김창섭**(55회) 법원 남쪽 입구쪽에 김창섭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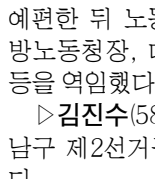
▷**류대현**(55회) 38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류동문이 성남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6월 말에 명예 퇴임하여 7월 3일 유엔우 세무회계 사무소를 개업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2 아미고 타워 404호. T. 031-622-0200)



▷**홍철근**(57회)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본청 국세조세 관리관으로 영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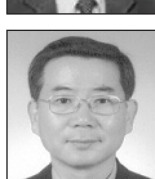
▷**나장백**(57회) 5월 25일 한국폴리텍 섬유패션대학 학장에 취임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나학장은 지난 1980년 육군 소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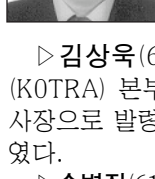
예편한 뒤 노동부 훈련지도과장, 대구지방노동청장, 대전지방노동청장,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김진수**(58회) 5.3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다.



▷**김상준**(58회) 7월 대구시 정기인사에서 동구 부구청장으로 있던 김동문이 대구공무원 교육원 원장으로 영전되었다.



▷**박무석**(59회) 7월 1일 서울 지방 국세청 조사 1국 3과에서 경주 세무서장으로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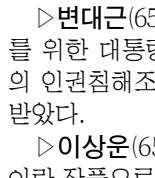
▷**김상욱**(61회)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런던지사로 발령을 받아 5월 30일 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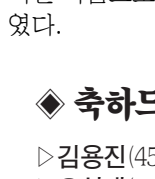
▷**손병직**(61회) 8월 1일 서울 강남 송파케이블방송국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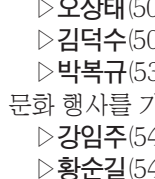
▷**정만진**(61회) 7월 31일 대구광역시 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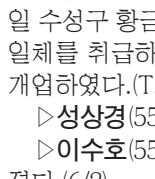
▷**이종수**(62회) 현대해상 대구본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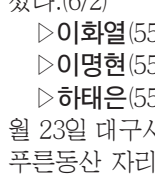
▷**김종윤**(63회) 총동창회 부회장이 대구경북정형외과 개업 의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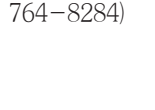
▷**변대근**(65회) 4월 24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인권침해조사국 9팀 조사관으로 발령 받았다.



▷**이상운**(65회) 「내 머리속의 개들」이란 작품으로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김종윤**(63회) 총동창회 부회장이 대구경북정형외과 개업 의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종윤**(63회) 총동창회 부회장이 대구경북정형외과 개업 의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계성학교 개교100주년 축하 메시지 계성 천년을 기다리며!

우리 계성학교가 100년의 역사위에 우뚝 섰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며 나라의 동량을 키우는 데 매진하여온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비바람을 견뎌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은 장구한 시간입니다만, 우리 계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배움터이기 때문에 천년뒤에도 더욱 훌륭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계성인들이 계성을 거치면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였기에 오늘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본부장  
**김 우 구** (55회)

날 전국 각처에서 제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계성에 감사하며 모교의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문 서로 간에도 격려하고 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속에 여기 수자원공사의 계성 동문들도 모교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으며, 계성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성 백년을 축하드리며, 우리 계성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종렬**(55회) 7월 30월 범물동에 명성육아공 공장을 개업하였다.

▷**배창식**(56회) 장녀결혼(5/12)  
▷**이영국**(56회) 장녀결혼(5/14)  
▷**서호수**(56회) 장남결혼(6/4)  
▷**고동현**(57회) 장녀결혼(6/18)  
▷**김영남**(58회) 장녀결혼(6/11)  
▷**권영준**(58회) 장녀결혼(7/1)  
▷**김상준**(58회) 장녀결혼(6/11)  
▷**유대근**(58회) 장녀결혼(7/8)  
▷**허종식**(61회) 장남결혼(6/4)

▷**이상준**(63회) 동문이 알칼리 이온수기를 취급하는 하이텍 홀딩스 용산점을 개설하였다.(T. 016-542-6303)

▷**김세한**(65회) 베스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김상욱**(65회) 자성의 집을 개원하였다.(6/24). (T. 010-5655-4664)

▷**김동원**(66회) 7호광장 옆 한마음 신경정신과의원을 8월 5일로 성서 신당동으로 이전 「대구한마음병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박성하**(70회) 지난 15년여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고, 최근까지도 수원 지방법원에서 근무해 왔던 박동문이 6월 28일 법무사 박성하 사무소를 개업하였다.(수원법원정문앞) T.031-212-7200

▷**박상현**(77회) 금북주 영업본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근만**(38회) 고문 모친별세(6/25)  
▷**우재승**(38회)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 별세(6/4)

▷**주갑은**(45회) 별세(5/11)  
▷**송명호**(45회) 별세(5/13)  
▷**허동양**(49회) 모친상(6/11)  
▷**송종영**(52회) 모친상(6/7)  
▷**이상규**(52회) 부인상(6/12)  
▷**정대기**(53회) 모친상(6/17)  
▷**박정호**(53회) 모친상(6/6)  
▷**박태하**(53회) 별세(5/5)  
▷**서재권**(54회) 부친상(7/28)  
▷**김원수**(54회) 부친상(7/30)  
▷**우진권**(54회) 모친상(6/12)

▷**홍기현**(54회) 부친상(5/30)  
▷**전영조**(54회) 부친상(5/24)  
▷**손승국**(55회) 모친상(5/31)  
▷**최영록**(55회) 모친상(7/11)  
▷**정형현**(55회) 부친상(4/20)  
▷**곽태운**(55회) 장인상(4/20)  
▷**김호식**(56회) 별세(6/19)  
▷**김태수**(56회) 부친상(6/10)  
▷**서영섭**(58회) 모친상(7/2)  
▷**백용현**(58회) 빙모상  
▷**박영태**(60회) 부친상(7/23)

▷**추연정**(61회) 부인상  
▷**김경배**(61회) 모친상  
▷**김종태**(61회) 모친상(5/28)  
▷**석재호**(61회) 모친상(6/8)  
▷**김명석**(61회) 모친상(7/1)  
▷**변창대**(62회) 모친상(5/8)  
▷**노춘식**(62회) 부친상(6/7)  
▷**성차경**(63회) 부친상(4/29)  
▷**임인수**(63회) 부친상(5/4)  
▷**김태현**(63회) 부친상(5/4)  
▷**김경식**(63회) 부친상(5/29)

▷**김형국**(63회) 장모상(5/31)  
▷**임홍우**(63회) 장모상(6/7)  
▷**김경진**(63회) 부친상(6/8)  
▷**권순범**(65회) 모친상(5/5)  
▷**김세한**(65회) 모친상(5/12)  
▷**조성원**(66회) 부친상(5/15)  
▷**문병현**(66회) 부친상(5/28)  
▷**박호동**(66회) 부친상(6/19)  
▷**오호길**(66회) 부친상(6/26)  
▷**도기문**(66회) 장인상(7/3)

▷**서원교**(67회) 부친상(4/16)  
▷**김병식**(67회) 부친상(5/15)  
▷**김진호**(67회) 부친상(5/22)  
▷**이명수**(67회) 장인상(7/2)  
▷**반용석**(69회) 부친상(7/23)  
▷**이근화**(69회) 부친상(6/20)  
▷**정은호**(70회) 모친상(4/25)  
▷**장진성**(70회) 부친상(5/8)  
▷**박석문**(70회) 부친상(7/7)  
▷**김재겸**(71회) 부친상(5/24)  
▷**이동춘**(71회) 부친상(7/2)  
▷**김경곤**(71회) 부친상(7/5)  
▷**김승룡**(71회) 빙부상(6/1)  
▷**박홍원**(77회) 부친상(7/1)

초대수필

# 자작나무 오솔길

물안개 자욱하게 피어나는 호숫가를 돌아 자작나무 우거진 호젓한 오솔길을 걷는다.

살랑대는 바람은 잔잔한 시냇물과 파릇파릇한 자작나무 잎을 흔들어 깨운다. 새하얀 옷으로 단장한 자작나무 오솔길에 들어서면 나는 스스로 사색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눈처럼 하얀 껍질과 시원스럽게 뻗은 흰칠한 키가 무척이나 정겹다.

푸른 숲 속에 학이 날아와 긴 목을 뻗어 하늘을 우리러 보는 듯, 애타게 그리던 다정한 옛님이 하얀 각선틀을 드러내며 다정하게 맞이하듯 자작나무는 언제나 정감과 그리움이 샘솟는다.

하얀 옷이 얇게 벗겨지면 아름다운 몸매를 살포시 드러내는 듯 신비롭기만 하다. 봄이 오면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하얀 껍질 뚫고서 연초록 잎을 내밀고 잎새 사이로 이삭 모양의 꽃에서 그윽한 향기를 드리운다.

바이칼 호숫가의 자작나무숲이나 광활하게 펼쳐진 시베리아 설원, 맑고 깨끗한 호수로 끝없이 이어지는 핀란드의 대자연 속의 우거진 자작나무숲이 아니라도 좋다. 무더운 여름, 초록의 숲 속에 들어서면 자작나무는 풀물에 배인 치마를 끌고 오는 다정한 연인처럼 다소곳이 미소 지으며 내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얀 자작나무 얇은 껍질에 사랑을 고백하는 시를 담고 아름다운 수채? ??그러 그대의 치마폭을 장식하고 싶다.

눈부신 그녀의 자태 앞에서 발강게 달아오른 불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발걸음. 한 잎의 그리움을 주워 올리는 풀벌레 소리, 이 고요함은 사랑의 이슬방울처럼 풀잎에 아롱진다.

적막한 어두움이 숲 속에 스며들면 가녀린 달빛을 빔하며 자작나무 껍질로 불을 밝혀 수많은 풀꽃과 풀벌레들과 어울려 작은 음악회나 무도회라도 가졌으면 싶다. 그래서 하늬바람이 일

렁이는 혼과 혼의 언덕 사이에서 노래하고 춤추었으면 한다.

중국의 소식(蘇軾)이 ‘그대를 보내는 숲 속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불을 밝히는데, 타는 불꽃 향기 더욱 아름답다.’라고 이별의 슬픔을 나누며 화촉을 밝혔다는 시를 읊조리지 않으리.

수천 년이 땀뒹땀 긴 세월, 깊은 땅 속에 파묻혀 잠들던 자작나무 껍질은 좀도 슬지 않고 곰팡이도 피지 않아 생생하게 살아 숨쉬면서 지금도 아리다운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깊은 산속에서 귀한 산삼을 캐는 심마니들의 바구니 속에는 언제나 자작나무 껍질이 정겹게 담겨있다.

지구가 먼 태양을 돌아오는 동안, 외롭게 서 있는 뿌리 깊은 자작나무는 느린 동그라미 하나 밖에 그리지 못하지만 강풍과 눈보라에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내면을 끊임없이 가꾸고 있기 때문이다.

눈보라가 치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도 자작나무는 왜 얇은 하얀 옷을 입으며 겉옷까지 벗어버리려 하는지. 차디찬 대지에 굳건한 뿌리를 박고 푸른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며 서 있는 자작나무의 땃땃한 기상을 거울삼으라고 하는 것일까.

초록으로 질게 물든 한 여름의 무더운 붉은 밤을 한줄기 흰 빛으로 식히려고 하는 것일까. 순백의 진리를 널리 세상에 알리고 악과 위선의 허물을 벗어던지려고 하는 것일까.

인간이 순백의 자연에 흠뻑 빠져들면 스스로 터득할 일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작나무는 자연에 순응하며 삶을 살아간다.

이른 봄이면, 물오른 자작나무에서 뿜아낸 풋풋한 향을 담은 수액이 좋은 약수라고 사람들은 자작나무 숲으로 몰려든다. 그러나 그 곳에는 짙짙한 자작나무의 뿌연 눈물이 고여 있다.

명상의 하얀 종이를 푸른 자작나무 숲 속 오솔길에 띄워본다.



김형규 (45회)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 八公建設(株)

<http://80palgong.com>

代表理事

洪 鍾 旭 (65회)

〒700-441 大邱廣域市 中區 南山洞 735-3(八公B/D)  
(향교에서 남문시장 방향 50M 우측)

TEL : (053)428-8080 FAX : (053)424-0475

H·P : 011-514-8202 E-mail : palgonghong@yahoo.co.kr



## 동문시선

## 春花三色

박성화 (71회)

파도가 간지르는 뜨거운 입김에  
들통나게 끓혀진 바닷가의 우체통  
수평선 너머 들려오는 박동소리꽃 동백.

세상을 등지듯이 눈비에 세례받아  
어둔밤을 하얗게 밝혀주는 가로등  
살점 푹푹 떨어지며 야위어가는 눈물 벚꽃.

바다를 벗어나서 인적을 떨쳐내고  
나 홀로 부끄러워 두손으로 가리는 속살  
분홍빛 소문으로 군데군데 애기꽃 진달래.



성구문화회원  
현대중공업 근무

## 남산편지5/

## 『나눌 이웃이 있어 더 아름다운 세상』

경북대학교 명예 교수, 대구도시가스 사장이며 대구 남산교회의 시무 장로인 정충영(45회) 동문이 지난 5월 저자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선교 간증이기도 한 『나눌 이웃이 있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펴냈다. 이 글은 저자가 2001년 봄부터 <남산편지>란 이름으로 이메일을 통해 처음 대학의 수강생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매주 한 두 차례씩 예화 중심과 성경 말씀 중심의 내용을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가며 이메일을 통해 아름다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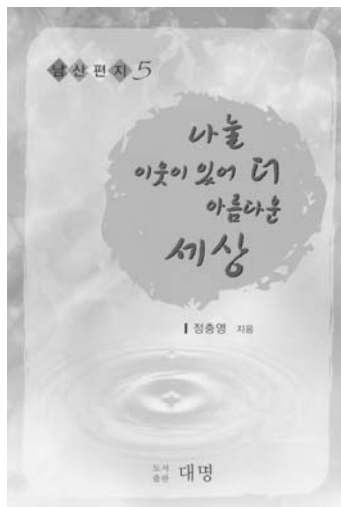
메마른 세상의 단비같은 감동적인 일화를 계속하여 채집하고 발굴하고 있는 정충영 동문은 아직도 어려운 삶

을 살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의 저서는 남산편지 시리즈의 다섯 번째 저서다.

지금까지 600여회의 글을 이메일로 발송한바 있는데 이번에 100여개의 감동적인 일화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등 8부로 구분하여 엮었다. 대구·경북 기독교 문인회 회원이기도 한 정충영 동문은 경북대학교 경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한국 로고스 경영

학회 회장, 대한 산업경영학회 회장, 한국 의사결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고문으로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충영 지음 / 정가 8,500원



## 『역사에서 여행 안내까지』 『앙코르와트의 모든 것』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다섯 번이나 답사한바 있고 앞으로도 '수시로 앙코르의 문을 두드리려고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소설가이자 대진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인 이우상(61회) 동문이 '역사에서 여행 안내까지'란 부제를 단 『앙코르와트의 모든 것』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대한 여행 안내문이나 기행문은 결코 아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호기심에서 놀라움으로 마침내 행인하기 어려운 감동속으로 독자를 밀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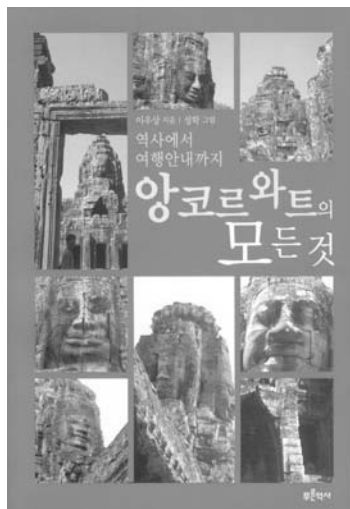
2003년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한 바 있는 저자는 그 후 그곳에 완전히 빠져들면서 캄보디아의 역사, 문화, 국내 유

적, 정치, 경제적인 문제까지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캄보디아의 역사와 운명이 우리와 닮았다는 저자의 생각이 앙코르와트에 더욱 집착하게 하고 있다.

저자는 그곳에서 상징의 경이로움, 장엄한 문명의 실체, 오만이 아닌 우물, 황홀보다는 아픔을 보았다고 토로한다. 특히 서양화가 성학씨가 직접 그린 앙코르와트는 1000년 흥망 성쇠의 그 역사로 인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앙코르는 앞으로도 수천년 혹은 그 이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을 기약할 수 있는

돌이 아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푸른역사  
이우상 지음 / 정가 19,500원



인쇄물 제작에서 납품까지 원스톱시스템 -

민 Min 기획

Total Printing Office

인쇄 광고물 전문업체 · 책자 · 회보 · 팜플렛 · 포스터 · 전단지 · 각종 사무인쇄

대 표

홍 임 호 (69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244-17번지  
TEL : (053)256-8534 · 7340  
FAX : (053)255-7831  
H·P : 011-504-7349  
E-mail : min8534@naver.com





## “유럽 전통치즈의 맛과 멋을 즐겨보세요”

이탈코어에서는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  
유럽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고급 소프트 치즈,  
기타 조리용 치즈, 유럽풍의 햄과 살라미 및 세계 3대 요리인  
프와그라, 캐비어 등을 직접 수입,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고급만을 공급함으로써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신선한 맛으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WWW.ITALCORE.COM](http://WWW.ITALCORE.COM)

(주)이탈코어 대표이사  
**이 현 각** (62회)

※ 대구 코스트코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판매처: 대형유통 코스트코 양재, 양평, 상봉, 대구, 대전 롯데마트 서울 10개매장 롯데슈퍼 10개매장 가르프 전국 15개매장 백화점 신세계 본점, 강남점, 도곡점  
제품상담 및 구입문의: (02) 3272-7677 (代)      쇼핑몰: [www.italcore.com](http://www.italcore.com)